

# 사회교사의 윤리

생활과 윤리 발표

2024.05.10

---

2301 강동은

---

# 목차

---

**01**   목적으로서의 학생

---

---

**03**   교장과의 관계

---

---

**05**   교사와 학부형과의 관계

---

**02**   개인차의 존중

---

---

**04**   교사 상호간의 관계

---

---

**06**   마무리

---

## 01. 목적으로서의 학생

---

어린이 시절은 미성숙 시절이기 때문에, 후일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고 그 시절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오는 어린이를 어른의 축소물로 보는 데서 오는 것이며, 성인이 목적이라면 어린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거론하면서도 어린이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고,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고, 그가 실패하면 정신적·육체적으로 준엄한 벌을 주기도 하는데, 교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 02. 개인차의 존중

---

민주사회의 특징은 개성의 존중에 있다. 그러므로 개성을 최고도로 발전시키는 것은 교수의 임무이다. 학교교육은 자칫하면 이와는 반대로 사람을 어느 틀에 박은 듯이 개성을 말살시키기 쉽다. 교사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개 학생의 개성의 발전을 북돋아주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를 자기가 그린 어떤 틀에 맞지 않는다고 불량아로 취급하면 안된다. 교과목에는 그 자체에 우열이 없으며, 중요과목에만 노력하기를 바라고, 어느 학생이 자기의 소질에 맞는 방면에 노력하는 것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대사회는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의 개성을 살리려고, 그것으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발달을 이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각을 달리하고, 취미가 같지 않고,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적 요소로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

---

## 03. 교장과 교사의 관계

---

교장도 교원이나, 기관장으로 교사를 통솔하고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과 교사들과는 교사 상호간의 관계와는 다른 점이 있다. 교장은 교사들의 인격을 충분히 존경해 주고, 교사의 창조성을 질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사의 모든 역량을 통합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학교행정에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주종관계만을 심하게 따지거나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들을 필요 이상으로 혹사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교장이라면 공은 교사들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기가 져야만 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할하는 교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

## 04. 교사 상호간의 관계

---

같은 교사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 앞에서 동료 교사를 비평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학생을 분열시키거나, 자기와 사이가 나쁜 교사의 반이라 하여 그 반의 학생들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하는 등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교사의 영전이나 명예를 방해하거나 손상시키기 위해 중상모략을 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며, 신임교사가 부임하였다고 업신여기거나, 방어하거나 경계하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

## 05. 교사와 학부형의 관계

---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에 위탁하는 부모들은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궁금해한다. 따라서, 평상시 수업과 다른 일이 생기면 곧 알려주어야 한다. 집에 일찍 보내는 경우, 임시휴일의 경우라도 그 사유를 밝혀야 불평이 없어진다. 또, 학부형의 권력이나 금력에 교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감사합니다.

생활과 윤리 발표 마무리

2024.05.10

---

2301 강동은

---